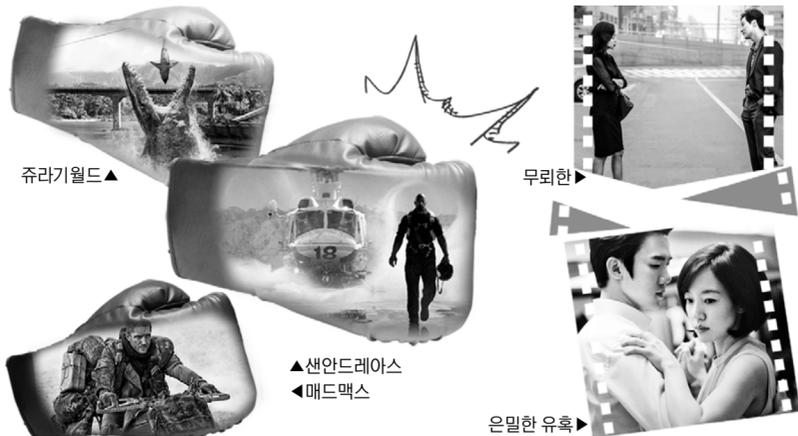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올드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국회인사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40 아웅장 PD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국회인사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11 30 채널A 뉴스특보		1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재)	00 그린실버 고행이 좋다	
12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국회인사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특선다큐(재)		55 날씨와 생활
2	00 KBS 광주 개국 73년 미각 토크쇼(전라도)(재) 55 콘서트 필드(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통 스페셜(재)	00 꾸러기 식사교실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넷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5 남도 스페셜(재) 55 튼튼생활재조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40 문화 4천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재)
4 1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자)	00 열린라이프 프리즘스토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증고구산4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팍>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 특별기획 (화장)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3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여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4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20 해외걸작드라마(삼총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0 실컷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할리우드에 깨진 한국영화 자존심

‘매드맥스’ 등 외화 점유율 74% ... ‘은밀한유혹’ 6%, ‘무뢰한’ ‘간신’ 등 1% 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영화가 관객몰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로 주말 극장가에서 한국영화가 관객 수 1위를 차지하기는 14주 가운데 3주에 불과하다. 이 기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30.4%에 그쳤고 나머지 70% 가까운 관객은 외국 영화,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에 내렸다.

할리우드 영화는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613만명)를 시작으로 ‘분노의 질주-더 세븐’(325만명),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1048만명)을 거쳐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311만명)까지 관객 수나 화제 면에서도 주목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킹스맨’이나 ‘매드 맥스’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형에서 벗어난 영화인데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드라마나 작품성 면에서 별 볼 일 없이 대규모 액션으로 밀어붙이듯만 하는 팝콘 무비로 폄하하기에는 관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하게 할 만한 웰메이드 영화들이 한국 극장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실제 국내 관객들도 이 영화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성적은 초라했고 화제 면에서도 미치지 못했다.

2월 개봉작인 ‘조선 명탐정-사라진 놈의 딸’(387만명) 이후에 300만명을 넘은 영화는 ‘스물’(304만명)이 전부였다. ‘악의 연대기’가 209만명을, ‘차이나타운’이 147만명을 모아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나 이제 개봉 2~3주차이지만 ‘간신’(95만명)과 ‘무뢰한’(33만명)은 기대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그보다 앞서 박스오피스 정상을 한 차례 밟기는 했으나 ‘살인 의뢰’는 90만명이 채 안 되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막을 내렸고 ‘장수상화’ ‘위험한 상견례2’, ‘순수의 시대’ 등도 초라한 성과를 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한국영화에 돌과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는 접이다.

당장 극장 예매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재난 블록버스터 ‘센

안드레아스’(37.5%)와 ‘주라기 공원’의 속편 ‘주라기 월드’(14.4%), ‘매드 맥스’(13.5%), ‘스파이’(8.8%) 등 할리우드 영화 4편이 총 74%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이번 주 신작인 멜로 범죄물 ‘은밀한 유혹’조차 6.6%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무뢰한’(1.9%), ‘연평해전’(1.8%), ‘간신’(1.8%), ‘악의 연대기’(1.6%)는 줄줄이 1%대 예매점유율에 머물러 ‘입소문에 힘입은 뒷집’ 측면까지 고려하더라도 흥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할리우드에서는 제목만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기대작이 줄줄이 찾아온다.

다음 주 개봉하는 ‘주라기 월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공룡 테마파크를 다시 부각시키려 과학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공룡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주라기 공원’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총괄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화제작이다.

이어 내달 2일에는 ‘원조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한류스타 이병헌이 출연하는 ‘터미네이터-제니시스’가 개봉해 ‘터미네이터’ 팬들은 이미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다.

인기 시리즈물은 또 있다. 톰 크루즈의 첩보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과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앤트맨’도 내달 개봉할 예정이고 8월 20일에는 또 다른 슈퍼히어로물 ‘판타스틱4’가 찾는다.

할리우드 시리즈 블록버스터는 연말까지 예약했다. 11월에는 대니얼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새로운 007 영화 ‘007 스펙터’, 연말 ‘스타워즈-깨어난 포스’까지 개봉한다.

그에 반해 개봉 대기 중인 한국영화 화제작은 내달 개봉하는 최동훈 감독의 ‘암살’, 류승완 감독의 ‘베터라’ 정도다. 기대작이 가물에 콩 나듯 나오는 것은 그만큼 총무로 인해 풀이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한국영화 침체 위기로와 함께 끊임없이 나온다.

하남영 영화평론가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영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며 “아직도 박찬욱·봉준호·김지운 등 일부 스타 감독에게 의존하면서 새로운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BS 1

05:00 EBS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고수다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늘
07:00 우렁향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16:00 한국기행 (바다로 가는 기차)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크프라임 (생명 40억 년의 비밀)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선데이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2:45 달라졌어요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역정)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유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알파개념)	12:15 올림픽스 (국어-알파개념)(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파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B형)
02:30 " (미적분1)	14:50 올림픽스 (문학-알파개념)(재)
03:20 " (수학 1)	15:40 " (미적분2)(재)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 (미적분)	16:30 " (수학 1)(재)
05:00 뉴턴스 (물리)	17:20 " (미적분2)(재)
06:00 " (생명과학)	18:10 2016 N제 (국어 A)
06:50 " (동아시아사)	19:30 " (영어)
07:4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인터넷 수능
09:20 " (심주석의 수학)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21:50 " (문학A형)(재)
11:00 " (수학)	22:30 최태상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50 배움플러스	23:10 인터넷수능(영어특해연습-종합)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1)
07:3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 (국어 6-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8:40 " (수학 3(상))
09:50 " (수학(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0:30 " (역사 1)	20:00 EBS 기획특강
11:10 " (국어 ③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 (수학 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2:30 실천취업가이드	22:00 중학 중-기시험대비(과학2-1)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2:40 등업신공 (수학 3(상))
13:50 " (과학1(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
14:30 " (수학2(상))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15:20 만점왕 (국어 3-1)	24:30 백점공략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4월 22일 乙卯)

子	48년생 몰라서가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이다. 60년생 처음처럼 그대로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2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84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82
丑	49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61년생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73년생 총체적인 점검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85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32, 06
寅	38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50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만이 난무하고 있다. 62년생 괜히 일만 벌여 놓은 꼴이다. 74년생 방식의 차이에 비롯된 바가 크다. 86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19, 33
卯	39년생 건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63년생 결집들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제와 되리라. 87년생 요절 복통할 노릇이다. 행운의 숫자 : 49, 63
辰	40년생 의식을 달리 해야겠다. 52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64년생 양 쪽 편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한다. 76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된 되면서 발전을 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21
巳	41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53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65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77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36

午	42년생 체면 처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다. 54년생 장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66년생 규율이 명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다. 78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라. 행운의 숫자 : 37, 57
未	43년생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55년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 67년생 마음 앞 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79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12, 65
申	44년생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낫다. 56년생 분주한 시각에 걸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68년생 숙단은 연쇄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80년생 많은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니 세심하게 챙길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6, 45
酉	45년생 마지막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라. 57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의식할 필요 없다. 69년생 쌓아 놓은 기반으로 인해 수월해진다. 81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44, 53
戌	46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58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법이다. 70년생 구제와 되면서 가능성을 높여가 되느니라. 82년생 벗어난면 공허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26, 60
亥	47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 불이 될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후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71년생 흐름이 유언하러 쉽게 이루어지겠다. 83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8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결” ☎010-9790-8237

“먹고 살려고 시작한 악극 이제는 전통 살릴 마음 뿐”

악극 ‘봄날은 간다’ 서만난 최주봉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악극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악극이라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악극을 이어나갈 후배가 없어 안타깝기는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막상 얼굴을 보면 ‘만수 아빠’나 ‘쿠웨이트 박’ 같은 TV 드라마 속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는 배우 최주봉(70·사진). 그는 지난달부터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악극(樂劇) ‘봄날은 간다’를 공연하고 있다.

최근 브라운관에선 그의 활동이 뜸한 상태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미치다시피 매달리다 보니 한 번에 여러 작품을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감칠맛나는 TV 배우인 그가 악극을 공연한다고 하면 상당수 젊은 시청자들은 그가 ‘악극으로 외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TV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의 ‘만수 아빠’로 이름을 알리기 전 십수년을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가 TV로 옮겨온 연극인 출신 탤런트다. 악극 공연 자체도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대학교 4학년이던 1969년 이순재 선배가 나오던 ‘시라노 드 벨주어’으로 프로 극단에 몸을 담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극단 기교에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문식, 박인환, 김진태 등 그와 친한 동료 배우들이 모두 극단 기교 출신이다.

그러던 그가 방송에 나간 것은 연극배우로 10여년째 활동하던 중이었다.

“1979년 한 PD분이 절 연극무대에서 보고 드라마 ‘형사’에 강도 역으로 캐스팅하면서 TV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좋은 인상을 남겼던지 그걸 계기로 단역을 하다가 ‘한지붕 세가족’까지 나가게 됐어요.”

생활을 위해 발을 들인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알렸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연극무대에 있었다.

그는 TV에서 얻은 인지도를 등에 업고 무대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극단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시점에 그가 윤문식, 박인환 등과 심심일만으로 돈을 모아 선보인 것이 바로 악극이었다.

그는 “솔직히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했다. 1977년 악극 ‘이순일과 심순애’를 했다가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젊어서 전근대적인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는 하지 않았는데 어려워지니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도 오랜만이라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1993년 선보인 ‘번지없는 주막’이 대박이 났다. 대학로 공연장 대표스 앞에는 몰려든 관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극단은 그 여세를 몰아 ‘홍도야 울지마라’ ‘울고 넘는 박달재’ ‘비내리는 고모령’ 등의 악극을 연달아 선보였다. 지금 공연 중인 ‘봄날은 간다’도 그 때 했던 작품이다.

그는 악극이라는 장르가 TV나 연극과는 또 다른 연기 ‘기술’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극단 기교에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냥 해도 무난히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연기는 노력함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무대에서든지 불러주면 바로 달려가서 남과는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는 당분간 TV보다 무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달 열리는 대구국제뮤지컬무대에도 참여해 창작뮤지컬 ‘태화강’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최주봉은 “무대에서 온 힘을 다해 관객들에게 악극만이 줄 수 있는 진한 향수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